정읍시 축산환경 개선·악취 저감 총력

95곳 농축산부 깨끗한 농장 지정
상반기 점검 대부분 양호한 관리
연말까지 48곳 신규 지정 박차

정읍시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악취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읍시가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95개 축산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48개 농장을 신규로 지정해 연말까지 143개 농장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95개 농장에 대해 상반기 사후관리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가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축사 바닥 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상태, 소독시설, 축사 주변 관리상태 등 지정 기준 준수 이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95개 농장 대부분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에도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 및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축사 바닥과 주변 정리 정돈, 주기적인 축사 소독을 실시해 축산환경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지정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악취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축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축산악취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정읍취재본부장 parkks@

15일 송하진(중앙) 전북도지사와 이환주(오른쪽) 남원시장이 '비즌' 준공식 후 내부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

침체한 농촌재생을 목적으로 한 시민협동조합 사업장이 남원에 들어섰다.

남원시는 도비 10억원 등 총 25억원이 투입된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의 준공식을 금지면 입암리 갓바위 일원 부지에서 가졌다.

준공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시장, '비즌'의 소영석 이사장을 비롯한 입암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북 최초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흉물로 버려진 방앗간, 폐교 등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작업장, 양조장, 카페 등)로 재생해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전북도의 2019년 첫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된 '비즌'은 기존에 방치돼있던 양곡창고와 정미소를 양조시설로 변모시킨 사업장이다.

1층에는 발효·양조시설, 청년창업 수제맥주, 전통주, 증류주 공유 제조시설 등이 갖춰졌고 2층에는 전통발효 양조체험장이 조성됐다.

마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미미살롱'이란 간판을 달고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은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원료작물 계약재배 단지도 조성했으며 월 1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생산되는 막걸리와 소주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구축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코로나 악조건에도…순창군 상반기 16개 스포츠 대회 유치

33개 전지훈련팀 순창서 훈련
5만여명 체류 지역경제 큰 도움

순창군은 올 상반기에만 제25회 한국초등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를 비롯해 13개 전국대회와 1개의 국제대회 등 16개 대회를 치렀다. 제6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순창군은 올 상반기에만 '제6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제42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제25회 한국초등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를 비롯해 13개 전국대회와 1개의 국제대회, 2개의 도단위대회 등 16개의 대회를 치렀다.

또 김포시 유소년야구단과 문경시 소프트테니스팀 등 전국의 33개 전지훈련팀을 유치돼 순창에서 훈련할 예정이다.

군은 많은 수의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연인원 5만여명이 순창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과 요식업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의 스포츠마케팅이 이처럼 성과를 낸 것은 팔덕다용도보조구장,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양질 스포츠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각 종목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스포츠 전문 방역단의 구성·운영 등이 큰 효과를 냈다.

순창군 관계자는 "각 종목단체장과 관계자 여러분, 불편을 감내해 준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20여개의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고창군 한국형 발사믹식초 표준화 구축 나서

극동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고창군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에 견줄 한국형 발사믹식초의 생산 표준화 구축에 나선다.

고창군은 15일 극동대학교와 '식초 산업 과학화 지원과 공동연구 수행'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식초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기획, 상호 교류 활성화, 과학화 산업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극동대학교는 식초 과학화를 위해 복분자 발사믹 식초의 최적화된 생산공정 표준화 연구와 우수성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고창군은 특화된 발사믹 식초 제조방식을 적용해 한국형 'K-발사믹' 상품화에 나선다.

K-발사믹은 포도대신 고창의 복분자를 원료로, 오크통 대신 전통 옹기에서 숙성시킨 프리미엄 발효식초다. 복분자 특유의 단맛과 산미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 샐러드 드레싱과 육류요리 소스로 시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식초 과학화를 통해 발효식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응용분야에 적용하여 국내 최초의 식초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식초를 기반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본격 운영

성당포구마을 태양광 시설 준공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익산시는 최근 마을자치연금 첫 운영 주체인 성당포구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 조성을 위해 익산시 등은 1억51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을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연금이 지급된다.

성당포구마을 전체 주민 중 35% 이상이 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마을은 또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법인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노인층의 노후보장 체계를 구축,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 연금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의 기관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 회귀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맞춰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군산시가 저소득 위기가구의 위급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및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총 3440건 17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